



[교실 속 그림책] 문

2018년 9월 22일 초판발행

| 지은이 | 옥수정

| 지도 및 제작 | 이현아

| 펴낸곳 | 교육미술관 통로

| 홈페이지 | www.museum-tongro.com

| ISBN | 979-11-87790-30-15 75810 : 비매품

| 총서명 | 교실 속 그림책

| 세트번호 | 979-11-957446-5-7 (세트) 75810



이 책의 저작권은 지은이 옥수정과
교육미술관 통로에 있습니다.

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
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.

머 리 말

교실 속 그림책 창작 프로젝트로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 이 그림책은 [교실 속 그림책]이라는 총서명을 가진 여러분 자신만의 책임입니다. 그림책 창작 과정을 통해 한 명의 교사이자 첫 독자로서 여러분의 내면 세계와 만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.

여러분은 지금까지 독자로서 책을 읽었습니다. 이제 한 권의 책을 구상하고, 기획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경험을 통해 필자의 정체성을 가진 어린이작가가 되었습니다. 앞으로는 좀더 능동적이고 입체적인 시선으로 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.

우리는 누구나 가슴 속에 자기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그림책이 여러분이 품은 빛과 언어를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. 이작은 한 권의 책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이어나갈 무궁무진한 창작의 세계를 응원합니다.

작가의 말

옥수정 작가는 그림을 사랑합니다.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. '난 왜 이렇게 못할까? 정말 재능이 있긴 한 건가?'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나의 어머니가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.

이 책은 나를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. 자신을 쓸모 없다고 생각했지만 두 개의 '문' 때문에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이야기입니다. 하나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이고, 또 하나는 달(moon)입니다. 주인공은 문을 열고 그 안에서 달을 발견하면서 행복을 되찾습니다.

저는 이 책을 위해서 2시간이 넘게 구상하고 수채화, 아크릴 등 다양한 기법을 연구했습니다. 독자들에게 신비로운 느낌을 전하기 위해서 아크릴을 선택했습니다. 주말마다 6시간 가량을 들여서 그림을 그렸습니다. 저는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책을 좋아해서 이런 경험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. 선생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영재 수업을 하면서 이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.

독자들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. '이 페이지는 그냥 까맣게만 칠해져 있구나. 대충 그린 건 아닐까? 대충했나?'

저는 독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.
'왜 이 작가는 이곳만 이렇게 표현했을까?
작가가 이렇게 해 놓으니 내가 생각을 해 볼 수 있겠네.
주인공은 무슨 뜻으로 이런 장면을 만났을까?'

저는 제 그림책이 그저 그림책에만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
겠습니다. 이런 책이었으면 좋겠어요.
생각을 무한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책.
생각을 안 좋아하는 어린이들도 생각하며 읽고 볼 수 있는
그림책.

저한테 그림책쓰기는 새롭고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. 내 마
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. 앞
으로도 그림책으로 많은 독자들과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.

"독자 여러분, 나 자신이 쓸모 없고 우울한 사람이라고 생
각한 적 있나요? 그럴 때 이 그림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
니다."

나에게
희망이란
없었다.

난 항상
외롭고
쓸쓸했다.

하지만

나의 인생을

180도

바꿔놓은 것이 있다.

바로

두 개의 분이다.



난 거리를 외롭게 걷고 있었다.

그 때, 문이 보였다.

유일하게 나에게만 보였을 수도 있다.

나는 그 문에 꼭 들어가고 싶었다.

무작정 문을 열었다.

모든 것이

깜깜했다.

갑자기 2개의 구슬이 나에게로 왔다.

구슬은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.

“넌 행복하니?”



그 질문을 듣는 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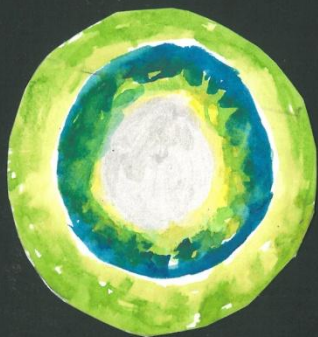
온 몸이 푼근해졌다.

하지만 마음은 푼근하지 않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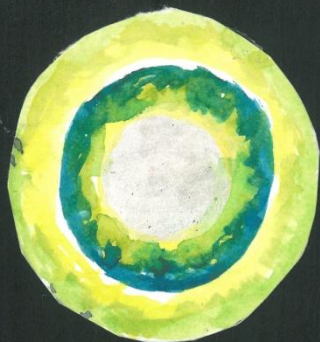
당황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.

그 때,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.

“으흠, 말을 잊지 못하는 것 보니까
일상에 충분히 만족하지만
속마음은 행복하지 않구나, 너.”



속마음을 들킨 것 같았다.
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편안했다.
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 건
이번이 처음이니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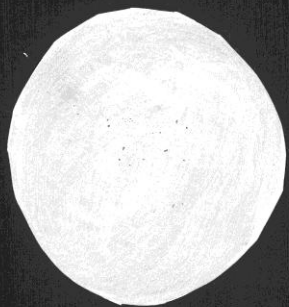


다시 목소리가 들렸다.

“오른쪽 구슬을 선택하렴.”

난 당황했지만 행복해지고 싶었다.

오른쪽 구슬을 선택했다.



그러자 저 쪽 끝에서

이것이 보였다.



어둠 속에서
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 달.

무엇이든
다 이겨낼 것 같은 달.



그 달은 정말 밝았다.

그 빛으로

모든 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.

하지만 난 그 빛 속에

새가만 어둠으로


존재했다.

빛이 있으면


어둠은

혼자가 된다.

혼자, 마치 나처럼.



그때,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.



“넌 지금 모습 그대로
이미 충분히 사랑스러워
넌 소중한 사람이야.”

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.

‘맞아.

난 그동안

너무 많은 걸 잊고 살았어.


난 있는 그대로

소중한 사람이야.’

‘고마워요...’

난 이미

행복을 가졌어.’



난 다음날

꿈을 곧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.

꿈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다.

다시 그곳에 가보니


문은 없었다.

벽만 덩그러리게 있었다.

나는 그곳에서 말했다.

'꿈이었구나. 그래도 덕분에 행복을 얻었어. 고마워.'





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다.

‘그 꿈, 다시 꿀 수 있을까?’



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(CIP)

문[전자자료] / 지은이: 옥수정

서울 : 교육미술관통로, 2018

전자책 책

ISBN 979-11-87790-30-15 75810 : 비매품

창작 그림책[創作--冊]

813.8-KDC6

CIP2017007088

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 (CIP)은
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([Http://seoji.nl.go.kr](http://seoji.nl.go.kr))와
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(<http://www.nl.go.kr/kolisner>)에서
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(CIP제어번호 CIP2017007088)

Philosophy

[통로, 스며 흐르다]

1. 흘러가다

교육미술관 통로는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요로운 아름다움을 흘러보내는 연결통로(헨리나우웬, 2011)가 되고자 합니다.

2. 스며들다

교육미술관 통로를 통해 흘러가는 선한 영향력이 아이들의 마음에 시와 그림이 되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.



비매품

75810



9 791198 744688

ISBN 979-11-957446-8-8 (PDF)

ISBN 979-11-957446-5-7 (시트)